

松廣寺 經牌의 千字文 帙(函)號에 대한 研究

A Study on Cheonjamoon Jil(Ham)ho of the Gyungpae in Songgwangsa

유 부 현 (Yoo, Boo-Hyun)*

◁ 목 차 ▷

- | | |
|------------------|-----------------------|
| 1. 서 언 | 3. 松廣寺 經牌의 千字文 帙(函)號에 |
| 2. 松廣寺 經牌의 千字文 | 대한 새로운 이해 |
| 帙(函)號에 대한 종래의 이해 | 4. 결 언 |
| | <참고문헌> |

<초 록>

본 연구는 千字文 帙號(函號)가 새겨져 있는 松廣寺 經牌에 대해 재조장과 초조장의 질호(함호) 그리고 거란장과 동일한 질호(함호)를 갖고 있는 開元錄의 帙次(函次)와 江南의 여러 대장경과 동일한 帙號(函號)를 갖고 있는 開元錄略出的 질호(함호)와의 비교를 통해 松廣寺 經牌의 千字文 帙號(函號)에 대해서 새롭게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3개의 송광사 경패에 새겨져 있는 천자문 질호(함호)는 종래에 이해된 바와는 달리 재조장과 일치하는 것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초조장의 천자문 질호(함호)일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단, 2개의 경전 즉 阿毘達磨品類足論과 新華嚴經論은 송광사 경패와 재조장의 천자문 질호(함호)와 일치하고 있다. 때문에 이 두 경전에 해당되는 것은 분명 재조장의 경패가 틀림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契丹藏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체적인 관계에서 보면, 종래의 견해와 같이 송광사 경패는 거란장과 관계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

셋째, 江南藏과 송광사 경패의 관계에 대해서 종래에는 아무런 논급이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매우 주목할 만한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大乘阿毘達磨雜集論, 別譯雜阿含經, 阿毗達磨集異門足論, 大元聖朝至元辨偽錄 등은 재조장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고, 오로지 江南藏과 일치하고 있다. 특히 大元聖朝至元辨偽錄은 江南藏을 비롯한 모든 刊本 대장경 가운데 磧砂藏(1216~1322)에 처음 수록되었고, 大元聖朝至元辨偽錄의 천자문 질(함)호는 磧砂藏에서 최초로 부여된 것인데, 그 천자문 질(함)호는 '何(585)'이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송광사 大元聖朝至元辨偽錄의 경패 질(함)호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질(함)호가 '何(585)'인 송광사 大元聖朝至元辨偽錄의 경패가 磧砂藏 大元聖朝至元辨偽錄에 붙여진 것임에 조금이라도 의심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要語: 松廣寺 經牌, 千字文 帙號(函號)

* 大眞大學校 文獻情報學科 教授(boohyun@daejin.ac.kr)

접수일: 2014년 5월 26일 최초심사일: 2014년 6월 13일 심사완료일: 2014년 6월 25일

<ABSTRACT>

The study is that it newly examines the gyungpae in Songgwangsa on which Cheonjamoon jilho(hamho) has been inscribed by comparing with the Jaejojang and Chojojang jilho(hamho), Gaewonrok jilcha(hamcha) same like Georanjang jilho(hamho), and Gaewonrokyackchul jilho(hamho) same like some Daejanggyung in Kangnam. The abridged results are as the following.

First, it is estimated that not merely is Cheonjamoon jilho(hamho) inscribed on the 13 gyungpae in Songgwangsa, otherwise known as before, far less in terms of consistency with Jaejojang, but also is pretty rare the possibility it is Cheonjamoon jilho(hamho) in Chojojang. Only the two books, called kyungeon, Abidalmapunmryujokron and Shinhwayeomgyungron are accorded with the gyungpae in Songgwang Temple and Cheonjamoon jilho(hamho) in Jaejojang. For the reason, they are considered to be the gyunpae of Jaejojang for sure.

Second, it is certain that the gyungpae of Songgwangsa is exactly not involved in Geranjang in the whole relation of it as before.

Third, there has been any reference on the relations between Kangnamjang, Daejanggyung made in Kangnam, and the gyungpae in Songgwangsa. However, there is remarkable analysis in the paper: Daeseungabidalmajabjibron, Byulyeokjabahamgyung, Abidalmajibyemoonjokron, and Daewonseongjojiwonbyunwerok and so on have nothing to do with Jaejojang and they are just in accord with Kangnamjang. Especially, Daewonsungjojiwonbyunweerok is first included in Jeoksajang(1216~1322) among all the Daejanggyung made of mokpanbon including Kangnamjang, and the Cheonjamoon jilho(hamho) of it is given in Jeoksajang at the very first, called 'Ha(585)'. And it is right the jilho(hamho) of the gyungpae of Daewonsungjojiwonbyunweerok in Songgwangsa. Taken the such being the case, there is no doubt that the gyungpae of Daewonsungjojiwonbyunweerok in Songgwangsa which has the jilho(hamho) called 'Ha(585)' is attached in Jeoksajang Daewonsungjojiwonbyunweerok.

Key words: gyungpae in Songgwangsa, Cheonjamoon jilho(hamho)

1. 서 언

松廣寺에 소장되어 있는 經牌는 1278년 11월 圓鑑國師(1226~1292)가 禪源社에서 이안한 丹本 藏經을 봉안할 때 經名을 표하기 위해 函과 帙에 부착한 표장물로 전하고 있다. 松廣寺의 경패는 처음에는 1938년 5월 8일 보물 제294호 지정문화재로 관리되었으나, 그 후 1963년 1월 21일 문화재 일제 정비시 보물 제175로 재지정되었다. 분류는 판각류이고, 수량은 43개이며 재질은 象牙와 木製(혹은 鯨鬚)이며 조각연대는 정확하지 않으나 고려시대로 되어 있다. 이들 중 현재 10개는 象牙製이며, 나머지 33개는 木製(구: 鯨鬚)인데, 이들은 10cm 정도 크기의 직사각형 패에, 정면에는 ‘大方廣佛華嚴經第五秩’과 같은 경전 이름을 새겼으며 뒷면에는 像 하나를 부조하고 받침과 머리 장식을 더한 형태이다.¹⁾ 10개의 상아제 경패에는 신장상 혹은 보살상이 부조되고, 연꽃 받침에 이수를 머리장식으로 하여 투각된 점이 특징이다. 33개의 목제 경패에는 주로 부처상이 합장을 하였으며, 삼산형의 머리로 표현되었는데,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경패 머리 장식이 활짝 핀 연꽃이거나 연잎으로 덮여져 있다.²⁾

이러한 송광사 경패에 대해 몇 편의 연구가 이미 발표되었다.³⁾ 종래의 연구는 경패의 유래와 현황 그리고 경패의 제작 형태 및 시기를 비롯한 경패에 새겨진 銘文까지 포함한 것이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경패에 새겨진 銘文 가운데 千字文 帙號(函號)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고찰되었다. 그 결과 송광사 경패에 새겨진 千字文 帙號(函號)에 대해서는 고려 초조대장경의 千字文 帙號

1) 李鐵浩(正行), “松廣寺 經牌에 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2000), 109.

2) 李鐵浩(正行), “松廣寺 經牌에 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2000), 111.

3) 李鐵浩(正行), “松廣寺 經牌에 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2000), 43.

河廷龍, “松廣寺 所藏 經牌의 天地函號에 대한 書誌學的 考察,” 『古印刷文化』 10(淸州古印刷博物館, 2003. 12).

河廷龍, “松廣寺 經牌의 銘文에 대한 書誌學的 考察,” 『松廣寺 經帙 經牌』 (松廣寺聖寶博物館, 2003. 5).

韓盛旭, “松廣寺 經牌의 由來와 現況,” 『松廣寺 經帙 經牌』 (松廣寺聖寶博物館, 2003. 5).

李慶禾, “松廣寺 經牌에 대한 美術史的 檢討,” 『松廣寺 經帙 經牌』 (松廣寺聖寶博物館, 2003. 5).

(函號)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도출해 내었다.

그러나 종래의 이와 같은 결론은 송광사 경패에 새겨진 千字文 帙號(函號)와 재조대장경과의 비교를 통해 얻어진 것으로서 명확하게 구명된 것은 아니다. 千字文 帙號(函號)는 寫本 大藏經에서 유래되어 최초의 刊本 대장경인 開寶藏부터 이후의 모든 대장경에 적용된 것으로서 대장경을 구성하는 하나의 體制이다. 이 천자문 질호(함호)는 대장경의 계통에 따라 차이가 난다. 실제적으로 개보장 계통인 초조장, 재조장, 조성장의 경우 天(001)함부터 靱(510)함까지는 동일한 千字文 帙號(函號)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에 해당되는 千字文 帙號(函號)는 개보장 계통과 契丹藏 그리고 福州藏을 비롯한 江南의 諸藏이 각각 서로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조장과 초조장의 帙號(函號) 그리고 거란장과 동일한 帙號(函號)를 갖고 있는 開元錄의 帙次(函次)와 江南의 諸藏(福州藏, 資福藏, 磧砂藏 등)과 동일한 帙號(函號)를 갖고 있는 開元錄略出的 帙號(函號)와의 비교를 통해 松廣寺 經牌의 千字文 帙號(函號)에 대해서 새롭게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松廣寺 經牌의 千字文 帙號(函號)의 성격뿐만 아니라 松廣寺 經牌의 유래와 제작시기 등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도 일말의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松廣寺 經牌의 千字文 帙(函)號에 대한 종래의 이해

먼저 松廣寺에 소장되어 있는 43개의 經牌에 대해서 經牌에 새겨져 있는 내용을 [經名], [卷次 / 卷의 數量 / 帙(函)次], [三本華嚴經의 名號], [千字文帙(函)號], [千字文順次] 등으로 세분하고 [經牌의 材質]에 대한 내용을 덧붙여 그 고유 번호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1> “松廣寺에 소장되어 있는 43개의 經牌”와 같다.

<표 1> 松廣寺에 소장되어 있는 43개의 經牌

經牌 番號	經名	卷次 卷의 數量 帙(函)次		三本 名號	千字文 帙(函)號	千字文 順次	材質
1	大方廣佛華嚴經	第一	秩	貞			象牙
2	大方廣佛華嚴經	第四	秩	晉			象牙
3	大方廣佛華嚴經	第五	秩	晉			象牙
4	大方廣佛華嚴經	第■	■	■			象牙
5	大方廣佛華嚴經	第一	帙	貞			象牙
6	大方廣佛華嚴經	第一	函	周			象牙
7	大方廣佛華嚴經	第三	函	貞			象牙
8	大方廣佛華嚴經	第三	函	貞			象牙
9	大方廣佛華嚴經	第四	帙	晉			象牙
10	大方廣佛華嚴經	第四	函	周			象牙
11	大方廣佛華嚴經	第一	函	晉			木
12	大方廣佛華嚴經	第一	函	周			木
13	大方廣佛華嚴經	第一	函	貞			木
14	大方廣佛華嚴經	第三	函	晉			木
15	大方廣佛華嚴經	第三	函	周			木
16	大方廣佛華嚴經	第四	函	貞			木
17	大方廣佛華嚴經	第五	函	晉			木
18	大方廣佛華嚴經	第七	函	周			木
19	大乘妙法蓮華經			□			木
20	大方廣佛華嚴經	第二	秩	晉			木
21	大方廣佛華嚴經	第四	函	晉			木
22	大方廣佛華嚴經	第八	函	周			木
23	別譯雜阿含經	十卷			淵	277	木
24	出曜經	十卷			殿	426	木
25	阿毘達磨品類足論	等十卷			交	361	木
26	阿毗達磨集異門足論	十卷			氣	358	木
27	阿毗達磨集異門足論	十卷			同	357	木
28	經律異相	十卷			傍	443	木
29	經律異相	十卷			舍	442	木
30	大寶積經	一十卷			帝	76	木
31	大方廣佛華嚴經	一	部	周			木
32	大方廣佛華嚴經	第四		貞			木

經牌 番號	經名	卷次 卷의 數量 帙(函)次		三本 名號	千字文 帙(函)號	千字文 順次	材質
33	大方廣佛華嚴經	第六		周			木
34	大元聖朝至元辨偽錄	等十一卷			何	585	木
35	大方廣佛華嚴經	第一	秩	晉			木
36	大方廣佛華嚴經	一	部	貞第二			木
37	大方廣佛華嚴經	第六	秩	晉			木
38	大乘阿毘達磨雜集論	十卷			寶	236	木
39	新華嚴經論	十卷 第三帙			刻	527	木
40	續高僧傳	六卷 第三帙			正	216	木
41	續高僧傳	七卷 第三帙			承	471	木
42	내용 없음						木
43	내용 없음						木

송광사에 소장된 43개의 경패 가운데 천자문 질호(함호)가 새겨져 있는 13개의 경패에 대해서 李鐵浩(正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여 松廣寺 經牌의 千字文 帙(函)號가 초조장의 千字文 帙(函)號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松廣寺 經牌의 하나인) 阿毗達磨集異門足論의 同과 氣 등의 표기의 의미는 … 대장경 또는 경전의 함호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 문제는 이러한 표기가 어디서 유래되었는가에 있다. 현존하는 재조고려대장경의 천지함호를 조사해 본 결과 그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 釋宓菴(圓鑑國師)의 丹本大藏經經讚疏에서 보이는 바, 송광사에 거란대장경이 소장된 것을 알려 주고 있다. 그러나 경판의 함호는 거란대장경의 함자와는 일치 하지 않는다(氣賀澤保規編, 『中國佛教石經研究 - 房山雲居寺石經を中心に -』(京都大學學術出版會, 1996), 3). 결국 초조대장경의 그것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⁴⁾

河廷龍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여 松廣寺 經牌의 千字文 帙(函)號가 초조장 혹은 재조장 특히 초조장의 千字文 帙(函)號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 … 변위록의 경우는 재조대장경 이후에 역출된 바 고려대장경의 函號와는

4) 李鐵浩(正行), “松廣寺 經牌에 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2000), 43.

비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외의 9개의 경전 가운데 6개 경전은 재조대장경의 함호와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3개의 경전은 현존하는 초조대장경의 함호와도 일치하고 있다. ... 조사할 수 있는 9개 經典 가운데 8~9의 경전의 函號가 再雕大藏經의 그것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그 가운데 국내에 현존하는 初雕大藏經에서 확인할 수 있는 函號를 고려해 본다면 3개가 초조대장경의 그것과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전부가 일치한 것이 아니며, 초조대장경과 재조대장경의 函號도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송광사의 경패의 銘文이 말하는 함호를 통해서 각각의 경패가 그 제작시기가 조금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松廣寺에는 初雕 혹은 再雕大藏經이 보관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지 않나 싶다(확인이 불가능하지만 경패의 銘文 函號와 재조대장경의 함호와 다른 점과 재조대장경과 초조대장경의 함호도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초조대장경의 그것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다).”⁵⁾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종합해 보면, 종래에는 松廣寺 經牌의 千字文 帙(函)號가 거란장의 帙(函)號와 일치하지 않고, 재조장과 거의 일치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송광사 경패의 천자문 질(함)호는 초조장 혹은 재조장의 그것인데, 초조장의 千字文 帙(函)號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3. 松廣寺 經牌의 千字文 帙(函)號에 대한 새로운 이해

송광사에 소장된 43개의 경패 가운데 천자문 질호(함호)가 새겨져 있는 13개의 경패를 선별하여 경전과 그 천자문 順次에 따라 나열하면 다음과 같이 10개의 경전으로 정리된다.

- 1) 大寶積經一十卷 / 帝(076)
- 2) 大乘阿毘達磨雜集論十卷 / 寶(236)
- 3) 別譯雜阿含經十卷 / 淵(277)

5) 河廷龍, “松廣寺 所藏 經牌의 天地函號에 대한 書誌學的 考察,” 『古印刷文化』 10(淸州古印刷博物館, 2003. 12), 148-149.

- 4) 阿毗達磨集異門足論十卷 / 同(357), 阿毗達磨集異門足論十卷⁶⁾ / 氣(358)
- 5) 阿毘達磨品類足論等十卷 / 交(361)
- 6) 出曜經十卷 / 殿(426)
- 7) 經律異相十卷 / 舍(442), 經律異相十卷 / 傍(443)
- 8) 續高僧傳七卷第三帙 / 承(471), 續高僧傳六卷第三帙 / 正(216)
- 9) 新華嚴經論十卷第三帙 / 刻(527)
- 10) 大元聖朝至元辨偽錄等十一卷 / 何(585)

먼저 송광사 경패에 새겨진 千字文 帙(函)次와 契丹藏·江南 諸藏과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開元錄과 開元錄略出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원록은 開元 18년(730) 智昇이 西崇福寺에 안치되고 있던 佛典과 그 이외의 經典을 수집하여 편찬한 私家目錄으로 편찬이후에 奉勅入藏된 것이다. 이 목록의 구성은 모두 20권으로 이루어졌는데, 제1권에서 제10권까지는 總括群經錄(또는 總錄)이고, 제11권에서 제20권까지는 分別乘藏錄(또는 別錄)이다. 이 중에서 제11권에서 제13권까지는 有譯有本錄이고 제19·20권은 入藏錄이다. 有譯有本錄은 智昇이 搜集한 經典에 대해서 考訂을 하고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여 入藏시킨 경전이다. 每部에 經名, 卷數, 著譯者, 合帙 및 긴요한 考釋과 說明을 기록하였다. 그런데 이 經錄의 著錄이 비교적 번잡하기 때문에 智昇이 다시 入藏錄을 편찬하여 제19·20권으로 첨부하였는데, 이것은 有譯有本錄중에서 每經의 經名, 卷數, 合帙을 著錄하고 이외에 사람들이 藏經을 조직할 때에 참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異經名, 異卷 및 紙數 등의 내용을 더한 것이다.⁷⁾ 開元錄에는 千字文 帙號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각각 ‘帙’의 단위로 묶여서 배열된 경전의 순서를 유추하면 각 ‘帙’의 순차 즉 帙次를 매길 수 있고, 그 질차에 해당되는 千字文의 해당 文字를 추정해 낼 수 있다. 개원록의 帙次는 거란장에 완전 그대로

6) “阿毗達磨集異門足論十卷”에서 ‘十卷’의 경우 하정용은 원래 ‘一卷’으로 잘못 새겨진 것인데, 나중에 ‘十卷’으로 수정된 것으로 인식하였다(하정용, “松廣寺 所藏 經牌의 天地函號에 대한 書誌學的 考察,” 『古印刷文化』 10(淸州古印刷博物館, 2003. 12), 144).

7) 方廣錫, 『佛教大藏經史』(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1), 282.

계승되었다.

開元錄略出은 智昇의 開元錄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⁸⁾ 별개의 목록서로서 崇寧藏(1080~1103)에 처음 수록된 이후 資福藏(1175)·普寧藏(1277~1290) 등등의 대장경에 수록되어 있다. 崇寧藏을 비롯한 江南 지역에서 간행된 대장경의 帙號 帙次 등의 목록체계는 대부분 이 개원록약출과 일치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앞에서 언급한 10개의 경전에 해당되는 13개의 송광사 경패에 새겨진 千字文 帙(函)次에 대해서 재조장을 비롯하여 開元錄(契丹藏)과 開元錄略出(江南藏), 磧砂藏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大寶積經一十卷 / 帝(076)

① 大寶積經은 120권으로서 재조장의 翔(072)함~文(083)함에 수록되어 있다.

② 大寶積經 120권이 開元錄에는 師(074)帙~乃(085)帙⁹⁾에 수록되어 있고, 開元錄略出에는 龍(073)帙~字(084)帙에 수록되어 있다.

③ 大寶積經의 송광사 경패에는 卷數·函號(函順)가 “一十卷 / 帝(076)”로 되어 있는 것만 남아 있다. 이 함호(함순)는 모든 대장경의 大寶積經에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④ 大寶積經 송광사 경패의 함호(함순)와 완전히 일치하는 대장경이 어떤 것인지는 확정할 수 없다.¹⁰⁾

8) 崇寧藏에는 이 開元錄略出의 앞의 著者表記 부분에 “唐西崇福寺沙門智昇撰”이라 기재되어 있고, 資福藏·普寧藏 등등에는 “庚午歲”란 글귀가 첨가되어 “庚午歲唐西崇福寺沙門智昇撰”이라 기재되어 있다(方廣鎬, 『佛教大藏經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1), 276). “庚午”란 開元 18년(730)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開元錄略出을 智昇의 撰述로 인식하게 되었고, 또한 여기에는 開寶藏처럼 千字文帙號가 매겨져있기 때문에 開寶藏과의 연관성을 부여하게 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9) 開元錄에는 千字文帙號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필자는 개원록에 각각 ‘帙’의 단위로 묶여서 배열된 경전의 순서에 따라 각 ‘帙’의 순차 즉 帙次를 매긴 다음 그 질차에 해당되는 千字文의 해당 文字를 유추하였다.

10)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찰이 있었다. “再雕大藏經과 마찬가지로 송광사 경패의 대보적경은 76번째함인 帝함에 들어 있다.”(하정용, “松廣寺 所藏 經牌의 天地函號에 대

2) 大乘阿毘達磨雜集論十卷 / 寶(236)

① 大乘阿毘達磨雜集論은 16권으로서 재조장의 非(235)함에는 大乘阿毘達磨雜集論 10권(제1~10권)이 수록되어 있고, 寶(236)함에는 大乘阿毘達磨雜集論 6권(제11~16권)과 中論 4권(제1~4권)이 수록되어 있다.

② 大乘阿毘達磨雜集論 16권과 中論 4권이 개원록에는 寸(237)·音(238)帙에 수록되어 있고, 개원록약출에는 寶(236)·寸(237)帙에 수록되어 있다.

③ 송광사 경패의 卷數·函號(函順)가 “十卷 / 寶(236)”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손실된 경패에는 “等十卷 / 寸(237)”으로 기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④ 大乘阿毘達磨雜集論의 송광사 경패 함호(함순)인 寶(236)·寸(237)은 개원록약출의 그것과 완전히 일치한다.¹¹⁾

3) 別譯雜阿含經十卷 / 淵(277)

① 別譯雜阿含經은 16卷本과 20卷本이 있다.¹²⁾ 재조장에는 16卷本이 수록되어 있는데 不(275)함에 別譯雜阿含經 8권(제1~8권)이 수록되어 있고, 息(276)함에는 別譯雜阿含經 6권(제9~16권)이 수록되어 있다.

② 개원록과 개원록약출에는 20卷本이 수록되어 있다. 개원록에는 淵(277)·澄(278)帙에 수록되어 있고, 개원록약출에는 息(276)·淵(277)帙에 수록되어 있다.

③ 송광사 경패의 卷數·函號(函順)가 “十卷 / 淵(277)”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손실된 경패에는 “十卷 / 息(276)” 혹은 “十卷 / 澄(278)”으로 기재되어 있었

한 書誌學的 考察,”『古印刷文化』 10(淸州古印刷博物館, 2003. 12), 144}.

11)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찰이 있었다. “大乘阿毘達磨雜集論은 모두 6권으로 阿毘達磨雜集論이라고도 한다. 재조대장경에는 236번째인 寶함에 中論 4권과 함께 들어 있다. 송광사 경패에도 마찬가지로 함에 들어 있었으므로 참고가 된다.”{하정용, “松廣寺 所藏 經牌의 天地函號에 대한 書誌學的 考察,”『古印刷文化』 10(淸州古印刷博物館, 2003. 12), 146}.

12) 이 別譯雜阿含經의 조성장본, 초조장 남선사본, 재조장본은 16권본이고, 자북장본, 적사장본, 보녕장본, 영락남장본, 경산장본, 청장본 등은 20卷本이다(『중화대장경』 33책, p.269의 상단 제1항). 그리고 개원록에도 20卷本이 기재되어 있다.

을 것으로 판단된다.

④ 別譯雜阿含經의 송광사 경패 함호(함순)인 “十卷 / 淵(277)”은 재조장의 함호(함순)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고, 개원록 혹은 개원록약출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¹³⁾

4) 阿毗達磨集異門足論十卷 / 同(357), 阿毗達磨集異門足論十卷¹⁴⁾ / 氣(358)

① 阿毗達磨集異門足論은 20권으로서 재조장에는 弟(356) · 同(357)함에 수록되어 있다.

② 阿毗達磨集異門足論 20권이 개원록에는 氣(358) · 連(359)帙에 수록되어 있고, 개원록약출에는 同(357) · 氣(358)帙에 수록되어 있다.

③ 송광사 경패에는 卷數 · 函號(函順)가 “十卷 / 同(357)”, “十卷 / 氣(358)”로 기재되어 있다.

④ 別譯雜阿含經의 송광사 경패 함호(함순)인 同(357) · 氣(358)는 개원록약출의 그것과 완전히 일치한다.¹⁵⁾

13)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찰이 있었다. “別譯雜阿含經의 경우 경패에는 277번째 함인 淵함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재조대장경의 연합에는 大般涅槃經 3권 등 28종류의 경전이 들어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별역잡아함경의 경우 재조대장경에는 바로 앞함이라고 할 수 있는 275번째인 不함과 276번째인 息함에 별역잡아함경이 들어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하정용, “松廣寺 所藏 經牌의 天地函號에 대한 書誌學的 考察,” 『古印刷文化』 10(淸州古印刷博物館, 2003. 12), 145).

14) “阿毗達磨集異門足論十卷”에서 ‘十卷’의 경우 하정용은 원래 ‘一卷’으로 잘못 새겨진 것인데, 나중에 ‘十卷’으로 수정된 것으로 인식하였다(하정용, “松廣寺 所藏 經牌의 天地函號에 대한 書誌學的 考察,” 『古印刷文化』 10(淸州古印刷博物館, 2003. 12), 144).

15)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찰이 있었다. “阿毗達磨集異門足論의 경우 經牌에는 357번째인 同함과 358번째인 氣함에 속해 있다고 나타나 있다. 그러나 再雕大藏經의 경우, 356번째인 弟함과 同함에 阿毗達磨集異門足論 20권이 속해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하정용, “松廣寺 所藏 經牌의 天地函號에 대한 書誌學的 考察,” 『古印刷文化』 10(淸州古印刷博物館, 2003. 12), 144).

5) 阿毘達磨品類足論等十卷 / 交(361)

① 阿毘達磨品類足論은 18권으로서 재조장의 枝(360)함에는 阿毘達磨品類足論 10권(제1~10권)이 수록되어 있고, 交(361)함에는 阿毘達磨品類足論 8권(제11~18권)과 衆事分阿毘曇論 12권 가운데 2권(제1~2권)이 수록되어 있다.

한편, 초조장의 경우에는 재조장과 동일하게 阿毘達磨品類足論 10권(제1~10권)이 枝(360)함에 수록되어 있고, 阿毘達磨品類足論 8권(제11~18권)이 交(361)함에 수록되어 있으나, 衆事分阿毘曇論 2권(제1~2권)은 재조장과 다르게 그 다음 函次인 友(362)함에 수록되어 있다.

만약 송광사 경패{阿毘達磨品類足論等十卷 / 交(361)}가 초조장의 그것이라면 응당 그 경패의 卷數·函號(函順)는 “等十卷 / 交(361)”가 아닌 “八卷 / 交(361)”로 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로 볼 때 阿毘達磨品類足論의 송광사 경패는 초조장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

② 阿毘達磨品類足論 18권과 衆事分阿毘曇論 12권이 개원록에는 友(362)·投(363)·分(364)帙에 수록되어 있고, 개원록약출에는 交(361)·友(362)·投(363)帙에 수록되어 있다.

③ 송광사 경패의 卷數·函號(函順)가 “等十卷 / 交(361)”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손실된 경패에는 “十卷 / 枝(360)”로 기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④ 阿毘達磨品類足論의 송광사 경패 함호(함순)인 “等十卷 / 交(361)”는 **재조장의 그것과 완전히 일치한다.**¹⁶⁾

16)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찰이 있었다. “阿毘達磨品類足論은 모두 18권으로 阿毘曇論이라고도 한다. 다른 경패와는 달리 第十卷(筆者註: “阿毘達磨品類足論等十卷”에서 ‘等十卷’의 경우 하정용은 ‘第十卷’으로 인식하였다)이라고 적혀 있어 이것이 오기가 아니라면 18권 가운데 제10권만을 몇권인가 함께 보관했다는 말로 보여진다. … 따라서 제10권을 몇권인가를 보관했던 函號에 걸었던 경패로 짐작된다. 한편 재조대장경과 마찬가지로 경패에도 품류족론은 361(筆者註: ‘361’은 ‘360’의 오류이다)번제의 枝함과 362(筆者註: ‘362’는 ‘361’의 오류이다)번제의 交함에 들어 있다. 따라서 경패의 交함을 고려해 본다면 11~18권까지가 들어 있었다고 받아들여진다(하정용, “松廣寺 所藏 經牌의 天地函號에 대한 書誌學的 考察,” 『古印刷文化』 10(淸州古印刷博物館, 2003. 12), 146).

6) 出曜經十卷 / 殿(426)

① 出曜經은 30권으로서 재조장의 宮(425)함·殿(426)·盤(427)함에 수록되어 있다.

② 出曜經 30권이 開元錄에는 宮(425)함·殿(426)·盤(427)帙에 수록되어 있고, 開元錄略出에는 宮(425)함·殿(426)·盤(427)帙에 수록되어 있다.

③ 出曜經의 송광사 경패에는 卷數·函號(函順)가 “十卷 / 殿(426)”으로 되어 있는 것만 남아 있다. 이 함호(함순)는 모든 대장경의 大寶積經에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④ 出曜經의 송광사 경패의 함호(함순)와 완전히 일치하는 대장경이 어떤 것인지는 확정할 수 없다.¹⁷⁾

7) 經律異相十卷 / 舍(442), 經律異相十卷 / 傍(443)

① 經律異相은 50권으로서 재조장에는 仙(439)~傍(443)함에 수록되어 있다.

② 經律異相 50권이 개원록에는 丙(441)~甲(445)帙에 수록되어 있고, 개원록 약출에는 靈(440)~啓(444)帙에 수록되어 있다.

③ 經律異相의 송광사 경패에는 卷數·函號(函順)가 “十卷 / 舍(442)”, “十卷 / 傍(443)”으로 되어 있는 것만 남아 있다. 이 함호(함순)는 모든 대장경의 大寶積經에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④ 經律異相 송광사 경패의 함호(함순)와 완전히 일치하는 대장경이 어떤 것인지는 확정할 수 없다.¹⁸⁾

17)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찰이 있었다. “出曜經은 모두 30권으로 재조대장경에는 425-427번째의 함인 宮殿盤함에 들어 있다. 재조대장경과 마찬가지로 송광사 경패의 출요경은 426번째의 함인 殿함이라고 표기되어 있다.”(하정용, “松廣寺 所藏 經牌의 天地函號에 대한 書誌學的 考察,” 『古印刷文化』 10(淸州古印刷博物館, 2003. 12), 146).

18)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찰이 있었다. “經律異相은 再雕大藏經에는 439번째인 仙함, 440번째인 靈함, 441번째인 丙함, 442번째인 舍함과 443번째인 傍함에 들어 있다. 松廣寺의 經牌는 442번째인 舍함과 443번째인 傍함에 들어 있어 그 函號가 일치하고

8) 續高僧傳七卷第三帙 / 承(471), 續高僧傳六卷第三帙 / 正(216)

① 續高僧傳은 30卷本과 31卷本이 있다.¹⁹⁾ 재조장에는 30卷本이 左(469)~明(472)함에 수록되어 있다. 左(469), 達(470), 承(471), 明(472)함 가운데 제1, 2函(帙)에 해당되는 左(469), 達(470)함에는 8권씩 수록되어 있고, 제3, 4함(질)에 해당되는 承(471), 明(472)함에는 7권씩 수록되어 있다. 개원록에도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다.

② 개원록에도 續高僧傳 30권이 左(469)~明(472)帙에 수록되어 있다. 단, 개원록약술에는 31卷本이 內(468)~承(471)帙에 수록되어 있다.

③ 續高僧傳의 송광사 경패에는 卷數·函號(函順)가 “七卷第三帙 / 承(471)”으로 되어 있는 것과 “六卷第三帙 / 正(216)”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남아 있다.

④ 첫째, 卷數·函號(函順)가 “七卷第三帙 / 承(471)”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재조장, 개원록과 일치하고 있다. 둘째, 卷數·函號(函順)가 “六卷第三帙 / 正(216)”으로 되어 있는 것과 일치하는 것은 없다.²⁰⁾

⑤ 卷數·函號(函順)가 “續高僧傳六卷第三帙 / 正(216)”으로 되어 있는 경패는 1976~1980년 사이에 새로 추가된 것이고,²¹⁾ 그 卷數·函號(函順)는 고려 전후의 대장경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이 經牌는 1976~

있다.”{하정용, “松廣寺 所藏 經牌의 天地函號에 대한 書誌學的 考察,” 『古印刷文化』 10(淸州古印刷博物館, 2003. 12), 144}.

19) 續高僧傳의 재조장본은 30권본이고, 개원록에도 30권본이 수록되어 있다. 한편 자북장본, 적사장본, 보녕장본, 영락남장본, 청장본 등은 31권본이고, 경산장본은 40권본이다(『중화대장경』 61책, 1077의 하단 제7항).

20)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찰이 있었다. “續高僧傳은 재조대장경의 경우는 469~472번째 함인 左達承明함에 들어 있다. 송광사 경패의 경우 한 함은 471번째인 承함에 들어 있어 동일하나, 또 한 함의 경우는 전혀 다른 216번째인 正함에 들어 있어 매우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완전히 같은 내용 즉 속고승전의 6권의 세 번째 질을 보관했던 함에 걸렸던 경패임에도 불구하고 그 함호는 매우 다르다는 것은 당시의 송광사 서고 즉 장경각의 도서 분류체계가 후대에 들어와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하정용, “松廣寺 所藏 經牌의 天地函號에 대한 書誌學的 考察,” 『古印刷文化』 10(淸州古印刷博物館, 2003. 12), 147}.

21) 李鐵浩(正行), “松廣寺 經牌에 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2000), 80, 110-111.

1980년 사이에 卷數·函號(函順)가 영터리로 기재된 상태로 僞作된 것으로 추정된다.

9) 新華嚴經論十卷第三帙 / 刻(527)

① 新華嚴經論은 40권으로서 재조장의 勒(525)~銘(528)함에 수록되어 있고, 제3질에 해당되는 함호는 刻(527함이다).

② 新華嚴經論은 實叉難陀가 漢譯한 新華嚴經에 대하여 唐代 李通玄이 開元 17년(729)에 그 뜻을 밝히고 경문을 해석한 것이다. 新華嚴經論은 開元錄에 遺漏된 것으로서 續貞元錄에만 수록되어 있다.

③ 刊本 大藏經에 수록된 것으로서 알려진 新華嚴經論은 高麗藏과 淸藏뿐이다. 淸藏에는 父(562)~士(566)함에 수록되어 있다.

④ 新華嚴經論의 송광사 경패 함호(함순)인 “十卷第三帙 / 刻(527)”은 재조장의 그것과 완전히 일치한다.²²⁾

10) 大元聖朝至元辨僞錄等十一卷 / 何(585)

① 大元聖朝至元辨僞錄 5권은 至元 23년(1286)²³⁾ 혹은 28년(1291)²⁴⁾에 祥邁가 황제의 명을 받아 지은 것인데, 元代 至元 연간(1264~1294)에 있었던 佛教와 道教의 다툼 그리고 불경의 진위를 변론한 내용을 담고 있다.

② 大元聖朝至元辨僞錄은 1251년에 完刊된 재조장(1236~1251)에는 수록되

22)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찰이 있었다. “新華嚴經論은 모두 40권으로 10권의 세 번째 질이라는 뜻으로 여겨진다. … 재조대장경의 경우는 525~528번째 함인 勒碑刻銘함에 들어 있다. 송광사 경패의 경우 527번째인 刻함에 들어 있다. 이 역시 재조대장경의 대장목록과 같다면, 이 함에는 제21~30권이 들어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하정용, “松廣寺 所藏 經牌的 天地函號에 대한 書誌學的 考察,” 『古印刷文化』 10(淸州古印刷博物館, 2003. 12), 147}.

23) 李樹云, “西京時期的大同佛教”(www.huaxia.com/txdt/dtwh/zjwh).

24) 陳士強, 『大藏經總目提要』 文史藏二 (上海古籍出版社), 348.

어 있지 않다.

③ 大元聖朝至元辨僞錄은 磧砂藏{何(585)함}, 永樂南藏{營(544)함}, 永樂北藏{嶽(617)함}, 徑山藏{嶽(617)함}, 清藏{於(651)함} 등 宋 이후의 刊本 大藏經에 수록되어 있는데, 磧砂藏의 함호(함순)가 송광사 경패 함호(함순)의 그것과 완전히 일치한다.

④ 磧砂藏은 1216년에 雕造가 시작되어 1322년에 完刊된 것이다. 이로 볼 때, 大元聖朝至元辨僞錄의 송광사 경패는 1322년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²⁵⁾

다음으로 지금까지 송광사에 소장된 43개의 경패 가운데 천자문 절호(함호)가 새겨져 있는 10개의 경전에 해당되는 13개의 경패에 대해 살펴본 내용을 [本考에서 매겨진 順番], [경패의 固有番號], [經名], [千字文 帙(函)次 數量], [千字文 帙(函)號], [再雕藏 / 開元錄(契丹藏) / 開元錄略出(江南藏) 등의 千字文 帙(函)號와 順次]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2> “千字文 帙(函)號가 있는 13개의 松廣寺 經牌”와 같다.

25)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찰이 있었다. “大元聖朝至元辨僞錄等十一卷은 원대의 1291년인 지원연간 정확히 28년에 만들어진 불경을 말한다. 따라서 고려대장경이 완성된 1251년 이후의 것이 되므로 초조 및 재조대장경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다. … 한편 572~585번째의 함인 霸趙魏困橫假途滅虢踐土會盟何함에는 法苑珠林傳 100권이 들어 있다. 재조대장경의 函號가 639함인 洞함까지인 점을 볼 때, 어느 시기인가 585번째인 何函에 들어 있던 法苑珠林傳이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大元聖朝至元辨僞錄을 보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하정용, “松廣寺 所藏 經牌의 天地函號에 대한 書誌學的 考察,” 『古印刷文化』 10(淸州古印刷博物館, 2003. 12), 145}.

<표 2> 千字文 帙(函)號가 있는 13개의 松廣寺 經牌

本考 順番	松廣寺 經牌				再雕藏	開元錄 (契丹藏)	開元錄 略出 (江南藏)	磧砂藏
	固有 番號	經名	卷數 帙(函)次	帙(函) 號				
1	30	大寶積經 (120권)	一十卷	帝(076)	翔(072) ~ 文(083)	師(074) ~ 乃(085)	龍(073) ~ 字(084)	좌동
2	38	大乘阿毘達磨 雜集論(16권)	十卷	寶(236)	非(235) 寶(236)	寸(237) 音(238)	寶(236) 寸(237)	좌동
3	23	別譯雜阿含經 (16권) ²⁶⁾	十卷	淵(277)	不(275) 息(276)	淵(277) 澄(278)	息(276) 淵(277)	좌동
4	27	阿毗達磨集異	十卷	同(357)	弟(356)	氣(358)	同(357)	좌동
	26	門足論(20권)	十卷	氣(358)	同(357)	連(359)	氣(358)	좌동
5	25	阿毘達磨品類 足論(18권)	等十卷	交(361)	枝(360) 交(361)	友(362) 投(363)	交(361) 友(362)	좌동
6	24	出曜經 (30권)	十卷	殿(426)	宮(425) 殿(426) 盤(427)	殿(426) 盤(427) 鬱(428)	宮(425) 殿(426) 盤(427)	좌동
7	29	經律異相 (50권)	十卷	舍(442)	仙(439)	丙(441)	靈(440)	좌동
	28		十卷	傍(443)	~ 傍(443)	~ 甲(445)	~ 啓(444)	
8	41	續高僧傳 (30권)	七卷第三帙	承(471)	承(471)	承(471)	達(470)	좌동
	40		六卷第三帙	正(216)	承(471)	承(471)	達(470)	좌동
9	39	新華嚴經論 (40권)	十卷第三帙	刻(527)	刻(527)	없음	없음	未詳
10	34	大元聖朝至元 辨偽錄(5권)	等十一卷	何(585)	없음	없음	없음	何(585)

지금까지 고찰한 것과 <표 2> “千字文 帙(函)號가 있는 13개의 松廣寺 經牌”의 내용에 의거하여 13개의 송광사 경패에 새겨져 있는 천자문 질호(함호)와 재조장을 비롯한 대장경과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3개의 송광사 경패에 새겨져 있는 천자문 질호(함호)는 종래에 이해된

26) 이 別譯雜阿含經의 조성장본, 초조장 남선사본, 제조장본은 16권본이고, 자복장본, 적사장본, 보녕장본, 영락남장본, 경산장본, 청장본 등은 20卷本이다(『중화대장경』 33책, p.269의 상단 제1항). 그리고 개원록에도 20卷本이 기재되어 있다.

바와는 달리 재조장과 일치하는 것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초조장의 천자문 질호(함호)일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2개의 경전 즉 5) 阿毘達磨品類足論과 9) 新華嚴經論은 송광사 경패와 재조장의 천자문 질호(함호)와 일치하고 있다. 때문에 이 두 경전에 해당되는 것은 분명 재조장의 경패가 틀림없다고 판단된다.

셋째, 8) 續高僧傳 가운데 고유번호가 41번인 “續高僧傳七卷第三帙 / 承(471)”은 재조장의 경패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1) 大寶積經, 6) 出曜經, 7) 經律異相은 재조장의 경패일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그렇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넷째, 契丹藏과의 관계에 있어서 3) 別譯雜阿含經과 8) 續高僧傳(고유번호가 41번인 “續高僧傳七卷第三帙 / 承(471)”)만이 거란장의 帙(函)號일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전체적인 관계에서 보면, 종래의 견해와 같이 송광사 경패는 거란장과 관계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

다섯째, 江南藏과 송광사 경패의 관계에 대해서 종래에는 아무런 논급이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매우 주목할 만한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2) 大乘阿毘達磨雜集論, 3) 別譯雜阿含經, 4) 阿毗達磨集異門足論, 10) 大元聖朝至元辨僞錄 등은 재조장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고, 오로지 江南藏과 일치하고 있다.

특히 10) 大元聖朝至元辨僞錄은 江南藏을 비롯한 모든 刊本 대장경 가운데 磧砂藏(1216~1322)에 처음 수록되었고, 大元聖朝至元辨僞錄의 천자문 질(함)호는 磧砂藏에서 최초로 부여된 것인데, 그 천자문 질(함)호는 ‘何(585)’이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송광사 大元聖朝至元辨僞錄의 경패 질(함)호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질(함)호가 ‘何(585)’인 송광사 大元聖朝至元辨僞錄의 경패가 磧砂藏 大元聖朝至元辨僞錄에 붙여진 것임에 조금이라도 의심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4. 결 언

본 연구는 千字文 帙號(函號)가 새겨져 있는 松廣寺 經牌에 대해 재조장과 초조장의 질호(함호) 그리고 거란장과 동일한 질호(함호)를 갖고 있는 開元錄의 帙次(函次)와 江南의 諸藏(福州藏, 資福藏, 磧砂藏 등)과 동일한 帙號(函號)를 갖고 있는 開元錄略出의 질호(함호)와의 비교를 통해 松廣寺 經牌의 千字文 帙號(函號)에 대해서 새롭게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13개의 송광사 경패에 새겨져 있는 천자문 질호(함호)는 종래에 이해된 바와는 달리 재조장과 일치하는 것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초조장의 천자문 질호(함호)일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단, 2개의 경전 즉 5) 阿毘達磨品類足論과 9) 新華嚴經論은 송광사 경패와 재조장의 천자문 질호(함호)와 일치하고 있다. 때문에 이 두 경전에 해당되는 것은 분명 재조장의 경패가 틀림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契丹藏과의 관계에 있어서 3) 別譯雜阿含經과 8) 續高僧傳(고유번호가 41번인 “續高僧傳七卷第三帙 / 承(471)”)만이 거란장의 帙(函)號일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전체적인 관계에서 보면, 종래의 견해와 같이 송광사 경패는 거란장과 관계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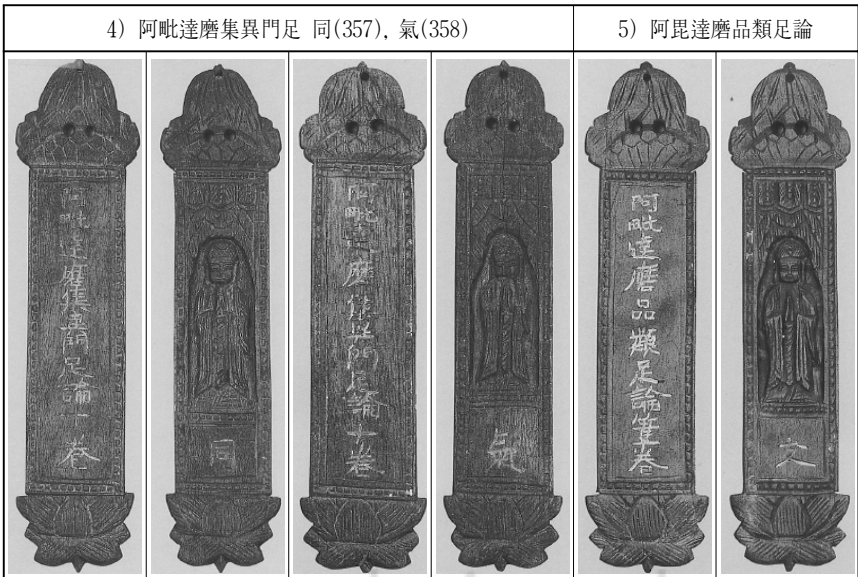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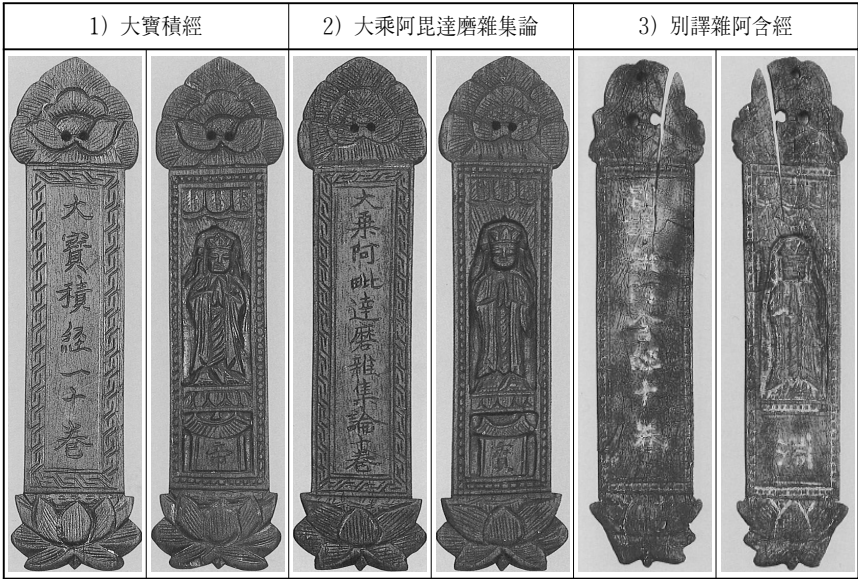
셋째, 江南藏과 송광사 경패의 관계에 대해서 종래에는 아무런 논급이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매우 주목할 만한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2) 大乘阿毘達磨雜集論, 3) 別譯雜阿含經, 4) 阿毗達磨集異門足論, 10) 大元聖朝至元辨僞錄 등은 재조장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고, 오로지 江南藏과 일치하고 있다. 특히 10) 大元聖朝至元辨僞錄은 江南藏(福州藏, 資福藏, 磧砂藏 등)을 비롯한 모든 刊本 대장경 가운데 磧砂藏(1216~1322)에 처음 수록되었고, 大元聖朝至元辨僞錄의 천자문 질(함)호는 磧砂藏에서 최초로 부여된 것인데, 그 천자문 질(함)호는 ‘何(585)’이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송광사 大元聖朝至元辨僞錄의 경패 질(함)호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질(함)호가 ‘何(585)’인 송광사 大元聖朝至元辨

僞錄의 경패가 磧砂藏 大元聖朝至元辨僞錄에 붙여진 것임에 조금이라도 의심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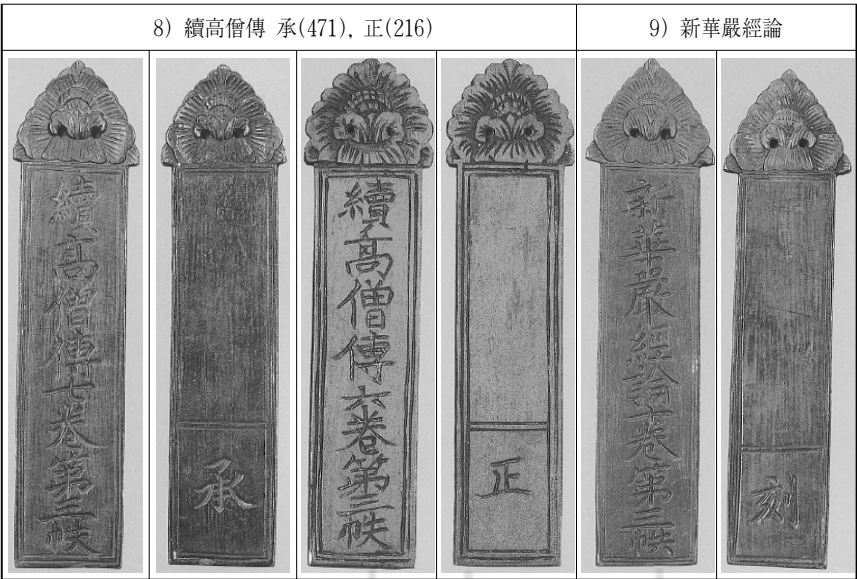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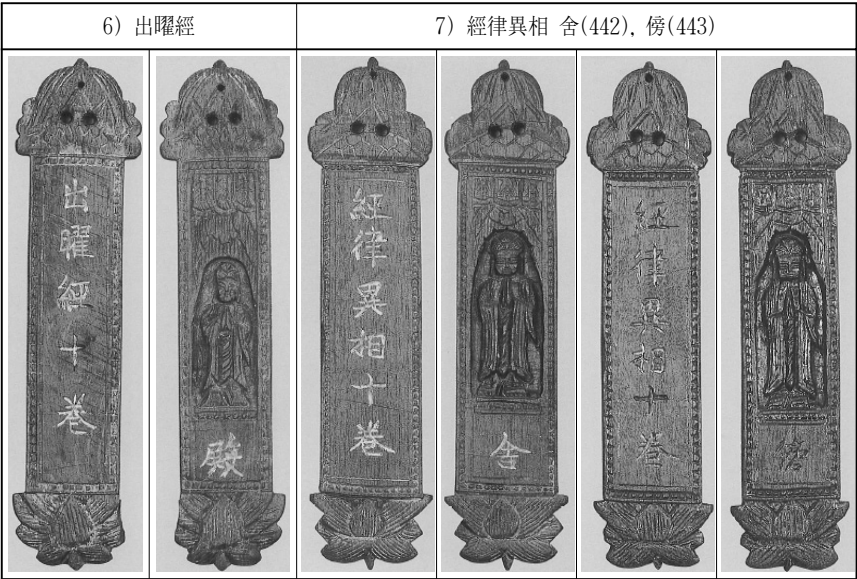
<참고문헌>

- 李鐵浩(正行). “松廣寺 經牌에 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2000.
- 河廷龍. “松廣寺 所藏 經牌의 天地函號에 대한 書誌學的 考察.” 『古印刷文化』 10(淸州古印刷博物館, 2003. 12).
- 河廷龍. “松廣寺 經牌의 銘文에 대한 書誌學的 考察.” 『松廣寺 經帙 經牌』. 松廣寺聖寶博物館, 2003. 5.
- 韓盛旭. “松廣寺 經牌의 由來와 現況.” 『松廣寺 經帙 經牌』. 松廣寺聖寶博物館, 2003. 5.
- 李慶禾. “松廣寺 經牌에 대한 美術史的 檢討.” 『松廣寺 經帙 經牌』. 松廣寺聖寶博物館, 2003. 5.
- 李慶禾. “松廣寺 經牌와 牌形裝飾.” 『文化史學』 21(한국문화사학회, 2004).

<송광사 경패 도판 1>



<송광사 경패 도판 2>



<송광사 경패 도판 3>

